

◇ 보 고

‘統營 古屋에서 수집된 水軍 古文書(1979년 발견)’에
대한 몇 가지 추론적 소견

朴 惠 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Some Speculative Opinions on the Old Naval Documents
Recovered in 1979 from an Old House in Tongyŏng

BAK Hae-iL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June 1979, there was news that over sixty sheets of old naval documents had been recovered from an old house in the city of Tongyŏng by an antiquarian. These document sheets were being used as wallpapers in the old house. No systematic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the studies on the Yi Sun-Sin's turtle-boats(1592-1597) was discovered in the sheets. The author's former work titled "Supplementary Remarks on the Iron-armour-clad of Admiral Yi Sun-Sin's Combat Turtle-boats" briefly introduces the only sheet with records of the length of the vessel's bottom plates and the height of the turtle-boat. This work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Vol. 4 No. 1 (1982).

Confronted with these scattered document sheets, the first task was to confirm the date of issue of each sheet or bundle of similar records to classify the sources in chronological order. However, except for a document on the crew assignment record for a turtle boat corresponding to year 1592, the dates of issue for other documents were indicated using Kanji(干支 : date or year termed in sexagenary cycle) and the corresponding years could not be uniquely determined. However, the dates may be surmised by critically analyzing specific items such as the length of the bottom plates for turtle-boat or battle-ship, and the types of firing arms appearing frequently in the records. The old documents concerning the turtle-boat and the special battle-ship are surmised to be issued over a period of two years starting at 60 years, for the early estimate, or 120 years after the en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The records on firing arms confirm that the shipboard weapons systems were gradually replaced by the systems equipped with lighter guns in the same period.

20년전 즉, 1979년 6월경 통영(統營: 당시는 충무시)의 한 오래된 가옥의 벽도배지에서 60여 쪽의 조선 수군의 고문서(古文書)가 발견되었으며, 한 고미술품 수집가가 모두 회수하여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음해에 그 수군 고문서의 복사물을 보게 되었으나, 이순신(李舜臣)의 창제귀선(創制龜船)에 대한 구조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고될만한 체계적인 기록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필자는 다만 “거북선 본판장(本板長)이 12파(把), 높이가 14척(尺)”이라고 기록한 문서 한 장을 『한국과 학사학회지』 제4권 제1호(1982)에 발표한 논고 “李舜臣龜船의 鐵裝甲에 對한 補遺的 註釋” 속에서 문서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소개, 언급한 바 있다. 즉, “史料의 現存與否는 至極히 偶然한 事情에 달려있으며, 天災地變이나 戰亂 또는 그 民族의 資料保全에 對한 認識不足 等으로 因하여 亡失되는 例가 虛多한 것이다.— 2年前(1979年 6月頃), 統營 古屋의 壁도배지 속에서 奇異하게도 水軍의 古文書가 發見되어 史料에 아쉬운 研究者들을 자극한 일도 있었다. 이 奇蹟的인 資料 中에서, 特히 龜船에 關한 記錄文書 一面을 參考삼아 이 자리에 옮겨 본다: 『庚子十月 日 右龜船 旗鼓汴物外重記 右龜船壹隻本板長拾貳把高十四尺 癸巳九月 日新造 …』, 壬辰亂以後 몇번째 癸巳年의 龜船인지 推理될 수 있을 듯하다(附錄 5 參照).”

수군의 고문서가 발견되었다는 통영시(統營市), 여기서 잠시 ‘統營’의 내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120권에는 “선조 26년(1593)에 비로소 통제사영(統制使營)을 두고, 삼도주사(三道舟師)를 관장하였는데, 이순신(李舜臣)이 그 일을 맡았다. …”, 또 “갑진년(甲辰年, 선조 37년(1604))에 고성현(固城縣)으로 옮겨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의 통영시청에서 편찬한 연혁지에서 해당 항목을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604년(선조 37년)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거제현 두룡포(頭龍浦)로 옮겨와 설치함(제6대 통제사 이경준(李慶濬)의 재임 시기). 1617년(광해군 10년) 두룡포가 고성현으로 이속되어 춘원면(春元面)이라 개칭함.
- 1895년(고종 32년) 통제영을 폐지함.
- 일제시대 1914년 용남, 거제 2군(郡)을 통합하여 통영군(統營郡)이라 개칭하고, 춘원면을 통영면(統營面)이라 개칭함.
- 일제시대 1931년 통영면이 통영읍으로 승격, 1936년에는 통영읍이 구역을 확장함(통영면 일원과 산양면의 미수리, 봉평리, 도남리, 당동리, 인평리, 평림리 등).
- 광복 이후 1955년 9월 1일 통영읍이 충무시(忠武市)로 승격되면서 통영군과 분리됨(20개동).
- 1995년 1월 1일 충무시와 통영군을 통합, 도농복합형태의 통영시 설치(7면 20동).

즉, '統營'은 통제사가 자리하는 '統制使營' 또는 '統制營'을 줄인 명칭으로서, 고종 32년 제208대 통제사 홍남주(洪南周)를 끝으로 통제영의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그대로 군(郡)이나 도시의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李舜臣)이 1593년(계사 癸巳) 8월 제1대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 1597년(정유 丁酉) 2월말에 파직, 투옥될 때까지의 통제영과 제2대 통제사가 된 원균(元均)이 같은 해 7월 칠천량(漆川梁) 해전에서 완패할 때까지의 통제영은 모두 한산도(閑山島)의 수영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일 배도 군사도 없는 통제사로 재임명된 통제사 이순신은 12. 3척의 전선(戰船)을 거두어 정비하여 명량해전(鳴梁海戰)에서 크게 승리하나, 향후 바다 위의 이곳 저곳을 거치다가 10월에 보화도(寶花島)에 3개월간 머문 후 1598년(무술 戊戌) 2월 그의 마지막 수영이 된 고금도(古今島)로 이진(移陣)할 때까지 소위 통제영은 해상(海上)에 있을 때가 많았다. — 난 후 6년이 지나 지금의 통영 지역에 통제영이 옮겨 설치됨으로써 수군의 재정비와 증강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투옥, 원균의 참패가 초래한 한산도 통제영의 종식과 함대의 궤멸, 다시 이룩한 이순신의 수군 재건, 그리고 마침내는 통제사 이순신의 전사 등 온갖 우여곡절로 점철된 당시 수군의 상황에서, 또 조정의 무관심 속에서, 이순신이 이루어 놓은 수군의 전법과 제도가 — 예컨대 수군 장비나 거북선의 제도 같은 것이 — 후대의 통제영에 제대로 전승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특히 난중의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문서가 난후의 통제영에 인수, 보존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다시 통영 고옥의 벽도배지 고문서에 관한 논의를 잇는다. 이 60여장의 고문서가 수군의 문서임은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문서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산발적인 데다, 개개 문서마다 그 작성 연대(年代)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萬曆歲壬辰(만력세 임진)'이라고 연대를 명시한 문서 한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년 주기의 간지(干支)만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무리한 방법이기도 하나 문서 중에서, 비록 같은 계열의 문서가 아니더라도 내용상 유사한 기록의 문서 몇 개씩을 함께 연계시켜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즉, 거북선 및 전선(戰船)의 본판장(本板長)이나 총·포(銃·砲)의 유형 등이 반복하여 나타나 있는 특유한 항목의 기록 내용을 소위 내적 비판(內的 批判)을 통하여, 이들 고문서가 대충 어느 시기에 해당될 것인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고문서 5점을 사진 도판으로 소개하며 몇 가지 항목과 관련된 소견(所見)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도망 또는 사망한 격군(格軍) 및 사부(射夫) 등에 대한 충원 인사문서

수군의 고문서 중에는, 도망 또는 사망한 격군(格軍) 및 사부(射夫) 등의 충원을 위하여 올린 7장의 문서가 들어 있다. 문서의 작성 형식이 유사하며 모두 관인(官印)과 수결(手決)로 처리된 것이다. 우선 문서에 기입된 간지(干支)의 연도순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a. 副船別將爲牒報事本船沙工權達□(· · · ·)其代營下閑遊趙又得身乙充定
(· · · ·)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大 將 所

庚寅二月十一日別將徐 (수결)

- b. 本船格金太元逃亡代營下閑遊宋正郁身乙充定緣由事.

庚寅二月二十八日別將徐 (수결)

- c. 本船格金時丕身死代營下閑遊金興云身乙充定緣由事.

辛卯八月初六日別將金 (수결)

- d. 本船格崔岩回身死代營下閑遊梁春大身乙充定緣由事.

壬辰二月十七日別將金 (수결)

- e. 本龜船格尹仁圭逃代營下閑遊金炳男身乙充定緣事.

萬曆歲壬辰十一月 日別將金 (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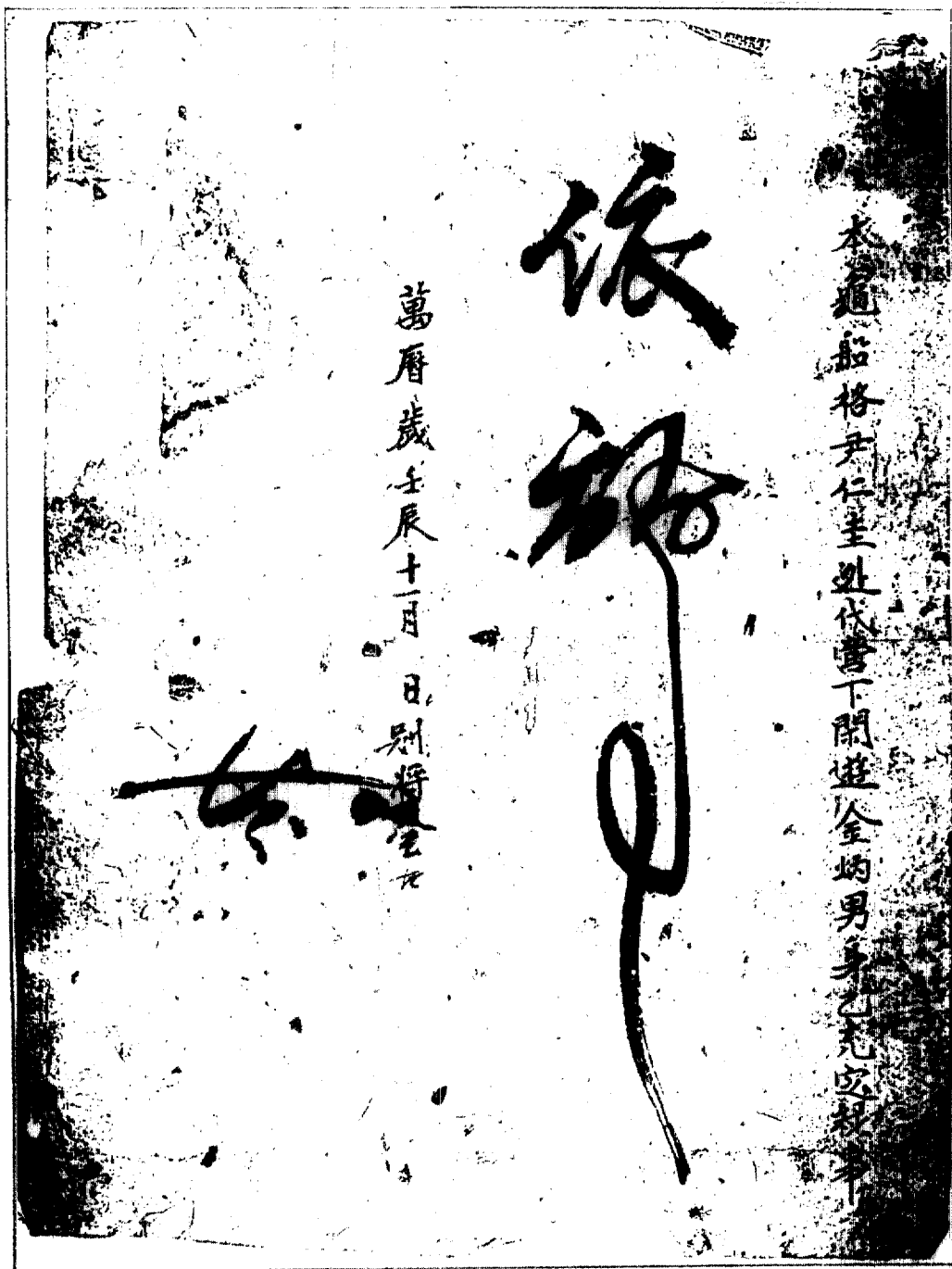
- f. 本船射夫金守根故代營下閑遊李點得身乙充定緣由□.

丁酉三月二十九日別將黃 (수결)

- g. 本船等牌朴昌卜身死代營下姜得宗身乙充定緣由事.

丁酉五月初八日別將黃 (수결)

위의 문서들은 그 내용과 공통된 형식으로 보아, 필경 같은 문서철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니라 문서 e의 내용이 다(도판 1 참조). 그것은 “본 거북선의 격군(格軍) 윤인규(尹仁圭)가 도망쳐, 그 자리



도판 1. 거북선[龜船] 격군(格軍) 도망자에 대한 충원 인사문서

에 영(營)에 소속된 데가 없는 김병남(金炳男)을 충원코저 합니다”라는 내용이며, 또한 날짜는 만력세 임진(萬曆歲壬辰) 11월로 되어 있어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된 해인 1592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 인사서류 중에서 유독 문서 e를 작성한 별장(別將) 김(金) 아무개만이 간지(干支) 위에 만력세(萬曆歲)라는 연호를 써넣고 있으며, 또 다른 별장들이 몇월 몇일을 예외없이 명시하고 있는 반면 날짜에서 몇일(日)인가는 기입하지 않고(즉 十一月 日)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그러나 문서 c, d 및 e의 각 별장의 수결(手決)을 비교해보면 앞의 두 별장은 동일인인 김씨이고 세번째 별장의 수결은 판이하게 다르므로, 문서 e는 다른 별장 김 아무개 특유의 서식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이상의 간략한 외적(外的) 검토로 미루어 특히 임진년의 문서 2장(d 및 e)과 정유년의 문서 2장(f 및 g)은 임진왜란 당시의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관할의 어떤 진(鎭)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확정적인 증거를 찾는 관건이 있다면, 그것은 각 문서에 날인한 관인(官印)의 관명(官名)을 판독(判讀)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사물의 관인의 흔적이 흐린 데다 필자의 천학의 탓으로 거의 판독할 수가 없었다.

2. 거북선[龜船], 전선(戰船) 및 별선(別船)의 본판장(本板長)이 12파(把)로 기록된 3장의 문서

수군 고문서 중에는 배의 본판장(本板長: 저판의 길이)을 기록한 문서 3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있다. 모두 같게 12파(把: 1파는 영조척으로 5척)로 기록하고 있다. 즉, 거북선[龜船]의 본판장이 12파(도판 2 참조), 전선(戰船)의 본판장도 12파(도판 3 참조), 그리고 또 별선(別船)의 본판장도 12파(도판 4 참조)로 각각 되어 있다. 우선 각 문서의 주요 내용을 원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a. ‘庚子十月 日右龜船旗鼓汴物外重記’

右龜船壹隻本板長拾貳把高拾四尺 癸巳年九月 日新造
前後帆竹參內 壹癸未渡海船來上

使 (수결) 船將金 (수결) 出使
旗牌官金 (수결)

- b. ‘三年二月 日統營右別船[]’
 地字二號戰船壹隻[]申[]
 本板長拾貳把
 廣拾伍尺
 下舳高拾伍尺
 自信防至[]伏板伍尺
 船頭廣貳拾尺
 船尾廣拾伍尺捌寸
 上庄長捌拾柒尺
 登板長肆拾玖尺
 登板廣拾伍尺
 登板高肆拾尺
 板屋高伍尺陸寸
 下庄船頭鑰地字砲貳位
 (이하 생략)

- c. ‘己亥二月 日右別船旗鼓汴物外重記’
 右別船壹隻本板長拾貳把 乙未十二月 日新造
 前後帆竹參內 壹癸未渡海船來上
 前風帆參件內
 後風帆肆件內
 貫子所貳拾陸巨里熟麻內
 回龍捌內
 (이하 생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한 시기의 배의 본판장으로서 모두 공통적으로 12파로 기록되어 있다. 간략하게 각 문서의 기록 내용을 살펴본다.

문서 a는 군기집물(軍器什物)의 인수인계서(또는 현황보고서)의 본문에 첨부한 명세서가 아닌가 한다. 즉, <경자(庚子)년 10월, 우(右) 거북선의 중요 군장비 및 집물에 대한 기록>이란 제목으로, “우 거북선 1척 본판장 12파, 높이 14척, 계사(癸巳)년 9월 일 신조”라 하고 다음 행에 “전후 돛대 3건(?)”, 그리고 그 내역으로 “하나는 계미(癸未) 도해선이 돌아와 올림”이라고 쓰고 있다.

문서 b는 통영(統營) 소속의 한 전선의 군장비 및 각종 집기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3년 2월 일 통영우별선()> 이란 제목으로, “지자 2호 전선(地字二號戰船) 1척 신(申)(), 본판장 12파, 너비 15척, 하체고 15척, 신방으로부터 □복판까지 5척, 선두너비 20척, 선미너비 15척 8촌, 상장장 87척, (. . .), 하장선두에 늦쇠 지자총 2위, (. . .)” 등을 기록하고 있다(하체고가 높은 것이 이례적이다).

문서 c도 역시 군기집물에 대한 비치 문서나 (또는 정례적인 현황보고서)의 본문에 첨부된 명세서가 아닌가 한다. 즉, <기해(己亥)년 2월, 우 별선의 중요 군장비 및 집물에 대한 기록> 이란 제목에 이어, “우 별선 1척, 본판장 12파, 을미(乙未)년 12월 일 신조”라고 쓴 다음 항목별로 “전후 돛대 3건(?), 전풍 돛 3건, 후풍 돛 4건, (. . .)” 등을 열거하고 각 항목마다 조달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별선(別船)은 특별히 만든 특종의 전선(이를테면 ‘別戰船’)을 지칭하는 것 같다.

이상 산발적인 3장의 고문서에 나타나 있는 본판장 12파(本板長拾貳把)의 기록을 감안하여, 다소 거친 접근방법이기는 하나, 그러한 본판장의 거북선 또는 전선이 대충 어느 시기의 것에 해당되었는가를 추리해보기로 한다. 본판장은 배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척도이며, 거북선 및 전선의 본판장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의 거북선의 변천상을 논의함에 있어 판단의 첫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시기별로 증가된 본판장인 것이다.— 거북선의 변천상에 대하여는, 고 김용국(金龍國) 선생의 뛰어난 연구가 있다(金龍國, “壬辰倭亂後 龜船의 變遷過程”,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編 第7輯(1968), 137-164쪽). 상세히는 이 논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 간략하게 거북선 및 전선의 변천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난후 17년, 즉 1615년(광해군 7년)에 비로소 순검사(巡檢使) 권반(權盼)이 수군을 검열하고, 이순신이 정한 바의 옛 제도를 감정하여 구제도로의 복귀를 시도하였다. 이 때 권반이 작성한 것이 소위 이순신의 옛 선제(船制)에 대한 <감정절목(勘定節目)> 인 것이다. 이 무렵의 사정은 전선과 거북선의 고대화(高大化) 현상을 심각하게 거론했던 숙종(肅宗)기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備邊司臚錄』 第四十一冊 肅宗十三年 丁卯 正月初一日조 참조). 즉, 숙종기의 국방의 증강, 수군의 정비 등이 논의될 무렵, 1686년(肅宗 12년) 12월 28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등 중신들이 전선의 체제가 전에 비해 커졌으니 이순신의 옛 제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토의하게 된다. 이 어전회의에서 김수항은 통제사 변국한(邊國翰: 숙종 10년에 제62대 통제사) 등의 보고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충무공 이순신의 정한 격식 내지 구제에 대해서는, 두번 지난 을묘(乙卯)년(즉, 1615년)에 순검사 권반(權盼)이 삼남(三南)의 주사(舟師)를 검열할 때, 통제사, 삼도 제장, 노졸 등과 더불어 상의하여 한 배에 신

는 군기집물(軍器什物), 배의 장단광협(長短廣狹) 등을 일일이 감정서로 꾸며 올린 후, 그 실행절목을 (각 수영에) 반포하였다 한다고 하며 …”라는 것이다. 또 “신(臣)이 또한 증경제사(曾經制使) 등 해방(海防)에 익숙한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확인하며 논의한 즉 모두가 구제(舊制)를 가변이 고칠 수 없다며 말하기를, 당초 절목을 감정할 때 난(亂)이 지난지 오래지 않아 이순신의 장교나 늙은 병사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모든 무장(武將)과 함께 묘당(廟堂)에 모아 감정한 것이라서, 그 정한 바 척수(尺數)는 반드시 이순신의 옛 제도에서 나온 것이고, … (따라서) 다만 이 절목대로 준행하여 배를 만들 때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고 한 가지로 옛 제도에 의해 만들어 전같이 과대하게 말라는 뜻을 각도에 분부하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임금도 그 절목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의정의 말에 따르면 거북선의 제도와 치수는 이 〈감정절목〉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거북선도 다른 전선과 함께 점차 커졌다는 설은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반(權盼)이 〈감정절목〉을 작성한지 이미 70년이 지나(난후 90년) 당초에 각도 수군에 내려보낸 실행절목은 거의 유실되고, 통제영 한 곳에만 남아있는 절목 원안을 전 참판 최관(崔寬)이 공홍도(公洪道) 순검사로 갔을 때 입수하여 비변사로 올려보냈다고 한다. 영의정 김수항 자신이 그 원안을 확인하고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통제사와 수사가 타는 대선(大船)은 본판(本板)이 14파로 자세히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반파(半把)가 증가되었으며, 차선은 11파인데 지금은 1, 2파 지차선(之次船)은 10파 혹은 9파 반(半)인데 지금은 2, 3파씩 증가된 것으로서 당초의 사목(事目)에 비교하면 자못 대소(大小)의 규제를 상실하였습니다.” — 이 귀중한 보고 내용으로부터 임진왜란 당시와 숙종(肅宗)기의 전선 및 거북선의 본판장을 각각 추정해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의 전선 및 거북선의 본판장은, 권반의 〈감정절목〉으로 전해지는 전선의 종목 중 차선(또는 지차선)의 본판장에 해당될 것이므로 11파(또는 10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숙종기의 본판장은 영의정 김수항의 말대로 1, 2파씩이 증가된 12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판장을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임진왜란 당시의 전선 및 거북선의 본판장 : 11파(또는 9.5-10파)
(權盼의 〈감정절목〉에 의한 추정)
- 숙종(肅宗)기의 전선 및 거북선의 본판장 : 12파
(1686년(숙종 12년), 金壽恒의 보고내용)
- 정조(正祖)기의 거북선의 본판장 : 13파(64.8척)
(1795년(정조 19년), 「이충무공전서」의 거북선)
- 정조기 전선의 예(往字六號戰船), 길이(本판장) : 73척(14.6파)
(有馬成甫의 「朝鮮役水軍史」(1942)에 인용된 全羅右水營誌)



도판 2. '庚子十月 日右龜船旗鼓汴物外重記'



도판 3. '三年二月 日統營右別船' (地字二號戰船壹隻) (申)



도판 4. '己亥二月 日右別船旗鼓汴物外重記'

본판장의 증가 추세도 비단 시기뿐만이 아니라, 수영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위의 시기별 본판장의 증가 추세를 그대로 감안하여 본다면, 수군 고문서의 거북선(문서 a) 및 전선(문서 b) 그리고 별선(문서 c) 등 소위 본판장이 12파로 기록된 배들은 대충 현종(顯宗)-숙종(肅宗)기의 한 본보기에 드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데 문서 a의 거북선 기사(庚子十月)와 문서 c의 별선 기사(己亥二月)에는 '전후 돛대'의 조달내역으로 똑같이 '壹癸未渡海船來上'으로 기입되어 있어, 문서 a는 문서 c가 작성된 기해(己亥)년 바로 다음해인 경자(庚子)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들 두 문서는 이르면 임란 후 60년이 지난 효종(孝宗) 10년(己亥, 1659) 및 현종(顯宗) 1년(庚子, 1660)에, 또는 난 후 120년이 지난 숙종 45년(己亥, 1719) 및 숙종 46년(庚子, 1720)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임진년(1592)에 3척, 또 을미년(1595)에는 5척에 이르렀던 이순신 휘하의 거북선은, 원균(元均)을 통제사로 한 조선 함대가 1597년(정유재란) 칠천량(漆川梁)에서 모두 궤멸될 당시 그 비극적 운명을 같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재임명된 통제사 이순신이 겨우 12, 3척의 폐잔 전선을 거두어 명량(鳴梁)에서 승리한 후, 이듬해(무술, 1598) 노량(露梁)에서 전사하기까지의 1년 2개월 동안 거북선을 다시 건조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한 가지 추가한다면, 필자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8년에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의 거북선 항목에서 이순신의 창제귀선의 저판질이(본판장)를 55척(11파)으로 추정한 것도 앞에서 인용한 권반의 <감정절목>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동사전 677쪽의 '거북선 제원비교'표 참조).

3. 각종 화포(火砲)의 배치와 발사체 및 부대 집물(什物)에 대한 기록문서

수군 고문서 중에는 전선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화포(火砲)와 총기류,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각종 부대 집물에 대한 기록문서 9장 정도가 산발적으로 들어있다(도판 5의 본보기 참조). 이들 문서 중에서 전선 내부의 각 칸[間]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화포의 종류와 집물 그리고 화포 및 총기의 종목이 일괄하여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옮겨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1.

第四間正鐵黃字銃正位

柄木正介

木送正介	
藥升正介	
藥桶拾介	
水鐵丸陸介	
之次中鉛丸柒拾正介	
第五間中鎗伏狼機正位	*
正鐵字砲參門	* *
箴鐵貳介	* * *
· · · · · (생략)	
第六間銅砲黃字銃正位	
· · · · · (생략)	
第七間小鎗伏狼機正位	*
正鐵字砲參門	* *
箴鐵貳介	* * *
· · · · · (생략)	
第八間四号鎗伏狼機正位	*
正鐵字砲參門	* *
鎗字砲貳門	* *
· · · · · (생략)	
(이상은 도판 5의 기록사항임)	

예 2. 第三間鎗玄字銃壹位機具

· · · · · (생략)	
第四間中鎗伏狼機壹位機具	*
正鐵字包參門	* *
箴鐵貳介	* * *
· · · · · (생략)	
第五間鎗玄銃壹位機具	
· · · · · (생략)	
第六間鎗伏狼機壹位機具	*
正鐵字砲參門	* *
藥桶壹介木	

- 箴鐵貳介 * * *
- · · · · (생략)
- 第七間鎡玄字銃壹位機具
- · · · · (생략)
- 예 3. 第十一間正鐵百字銃正位
- · · · · (생략)
- 第十二間□鎡伏狼機正位 *
- 正鐵字砲參門 * *
- 箴鐵貳介 * * *
- · · · · (생략)
- 上庄船尾小鎡伏狼機正位 *
- 正鐵字砲參門 * *
- 箴鐵貳介 * * *
- · · · · (생략)
- 銅砲百字銃貳位
- 正鐵百字銃肆位
- 大鳥銃肆柄 戊辰十月 日修備
- · · · · (생략)
- 正鐵三穴銃貳位
- 鳥銃貳拾正柄內伍柄倭
- 正鐵三枝銃拾伍柄
- 勝字銃□柄內正柄正鐵
- · · · · (생략)
- 左右銃穴朴鐵貳拾肆介
- · · · · (생략)
- 예 4. 鎡地字銃貳位
- 鎡玄字銃玖位
- 正鐵別黃字銃玖位

中鎗伏狼機陸位	*
小伏機狼玖位	*
伏狼機貳位	*
四号伏狼機陸位	*
正鐵黃字肆位	
正鐵百字銃捌位	
銅砲玄字銃貳位	
大鳥銃陸柄	
鳥銃貳拾正柄內伍柄倭鳥銃	
正鐵三穴銃貳柄	
短鳥貳拾伍柄	
正鐵三枝銃貳拾伍柄	
勝字銃參柄內正柄正鐵正柄鎗	
五号伏狼機貳位	*
長鳥銃拾柄	
大將箭捌介	
檄木拾柒介	
．．．．．(생략)	

위의 기록내용에서 화포류의 종목만 훑어 보더라도 임진왜란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의 함대는 각종 총통(銃筒)화기를 구사하여 잇따른 해전에서 수없이 왜선을 격파하였다. 즉, “먼저 거북선에 명령하여 적진 속으로 돌진하여 천(天), 지(地), 현(玄), 황(黃) 등 각종 총통을 쏘게 한 즉 …”(〈唐浦破倭兵狀〉, 임진(1592) 6월 14일), 또는 “… 부득이 여러 장령을 시켜 번갈아 나들면서 천, 지, 현 등 각종 총통과 장편전(長片箭) 등을 빗발같이 쏘아 맞힐 제 …”(〈見乃梁破倭兵狀〉, 임진(1592) 7월 15일) 등 이순신의 장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진왜란 때는 주로 천자총통(天字銃筒), 지자총통(地字銃筒), 현자총통(玄字銃筒), 황자총통(黃字銃筒) 등과 같은 중화기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 발사체도 철환(鐵丸) 뿐만이 아니라 대장군전(大將軍箭) 등 각종 대전(大箭)을 많이 발사하였다. 승자총(勝字銃)이나 호준포(虎蹲砲)와 같은 구경이 작은 총포류도 물론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에 옮긴 수군 고문서에 나타나 있는 화포류의 종목(예 1~예 4)에서는, 대형의 총통화기는 그 사용빈도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다소 생소한 백자총(百字銃), 불랑기(佛狼機) 그리고 왜식 조총(鳥銃) 등의 종류가 눈에 띄게 증가되어

있다.

조총에 관해서는 이순신이 “... 정철로 만든 조총 다섯 자루를 봉하여 올려보내오니 었디어 원컨대 조정에서도 각 도와 각 고을에 명하여 모두 만들게 하옵시기 바라며, ...”(〈封進火砲狀〉, 계사(1593) 8월)라는 장계를 올려 조총의 제작, 보급을 주청하고 있으나, 그같은 절실한 진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또 백자총에 대해서도 난중에 이미 그 실용성이 논의된 일은 있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후에 이덕형(李德馨)은 불랑기, 백자총을 충청수영에 운송하여 긴급할 때 쓸 수 있게 해줄 것을 상소하고 있으며(「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3월 18일조), 난 후 12년이 지나 조총, 불랑기, 백자총이 포수(砲手) 뽑는 시험과목에 들어있다는 기사가 보여(「광해군일기」, 광해군 2년(1610) 10월 14일조) 이 3종의 총포류가 점차 확대 보급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즉 본고의 범위에서는, 불랑기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보급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우선 수군 고문서의 기록 종목(예 1~예 4)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12차례 모두 ‘佛狼機’(* 표)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佛狼機’에 대한 당시 수영의 별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부대 항목으로 병기한 ‘正鐵字砲參門’ 또는 ‘鎗字砲貳門’ 등(* * 표)에서 ‘字砲(자포)로 기재한 것은 바로 불랑기의 ‘子砲(자포)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箴鐵貳介’ 등(* * * 표)에서 ‘箴鐵’은 자포를 모포에 삽입, 고정할 때 쓰이는 멈치못의 명칭인 것 같다. 즉, 불랑기는 자모포(子母砲)로 통칭되며, 우선, 자포(子砲)에다 중약선(中藥線), 반약(半藥), 토격(土隔) 및 탄환을 장전한 후 그 장전한 자포(子砲)를 불랑기 모포(母砲)에 삽입하고 발사하는 방식의 일종의 후장포(後裝砲)인 것이다(李康七, 「韓國의 火砲」(軍事博物館, 1977)). 그리고 불랑기가 조선에 전래된 것은 언제인가? “임란 중에 명군(明軍)이 포르투갈제의 불랑기를 조선에 가져왔고, 후일 조선식 불랑기가 제조됐다.”(洪以燮, 「朝鮮科學史」(正音社, 1946), 215쪽). 그러면 임진왜란 후의 불랑기의 보급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에 관련된 주요 기사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현종실록」, 현종 5년(1664) 3월 3일조.

“본부가 가지고 있는 화기(火器) 중에 이른바 불랑기(佛狼器)라는 것은 바로 대포 종류인데, 소포(小砲)처럼 자주자주 쓸 수가 있어 실로 화기 가운데 제일가는 화기입니다. 경상도 병영 및 통영(統營)에서 동래(東萊)에 쌓아둔 동철을 가져다가 몇 백 자루 더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강화유수 조복양(趙復陽) 아뢰).

- 「현종개수실록」, 현종 5년(1664) 6월 22일조.

“월곶(月串), 제물(濟物), ... 등의 각보에 나누어 둔 것은, ..., 대조총(大鳥銃) 5백

84자루, 소조총(小鳥銃) 2천 1백 50자루, …, 불랑기(佛狼機) 2백 44좌, …, 면포 10만 8천 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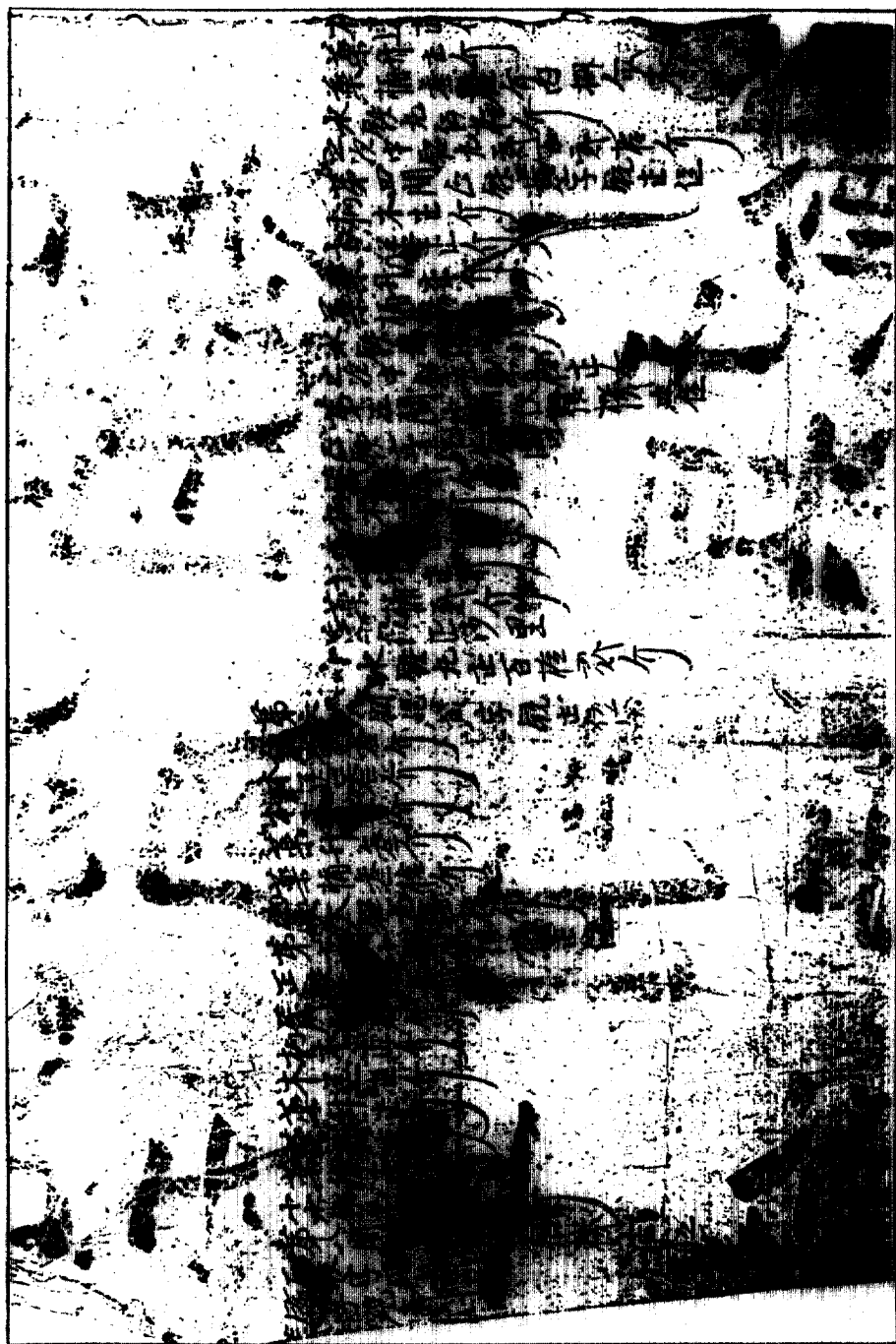
- 「현종실록」, 현종 6년(1665) 5월 8일조,
“통제사 정부현(鄭傳賢)으로 하여금 불랑기(佛狼機) 4. 5호 50위(位)와 정철자포(正鐵子砲) 2백 문, 잠철(簾鐵) 1백 개 및 매 위(位)마다 족철(足鐵) 1개씩을 만들어 강화도로 보내게 하였다.”
- 「숙종실록」, 숙종 7년(1681) 5월 21일조,
“강(江)에 임하여 적을 방어하는 것은 화포와 불랑기(佛狼機)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나, 만약 적이 백보(百步) 가까운 곳에 있으면, 소환(小丸)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명중시키는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양남(兩南)의 병영(兵營)·수영(水營)·통영(統營) 및 양서(兩西)의 병영으로 하여금, …”
- 「숙종실록」, 숙종 7년(1681) 8월 2일조,
“각 진보(鎭堡)에 있는 대포(大砲)·불랑기(佛狼機)·진천뢰(震天雷) 등은 관리(官吏)와 장졸(將卒)이 장진하고 방사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니, …”
- 「숙종실록」, 숙종 18년(1692) 12월 2일조,
“수어사(守禦使) 오시복(吳始復)이 또 아뢰기를, 장차 불랑기(佛狼機)를 많이 만들려고 동래(東萊)에 동(銅)을 사 놓았는데 운임(運賃)이 곤란합니다.”
- 「숙종실록」, 숙종 34년(1708) 8월 5일조,
“이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 불랑기(佛狼機)를 만들기를 청하니, 임금이 주달(奏達)한 대로 하라 하였다.”
- 「숙종실록」, 숙종 36년(1710) 11월 27일조,
“… 오목한 곳에는 대포(大砲)·중포(中砲)·불랑기(佛狼機) 등을 설치하게 하며, …”
- 「영조실록」, 영조 10년(1734) 5월 25일조,
“… 황해수사 민사연(閔思淵)은 앞서서 선상(船上)의 군기(軍器)를 잃어버렸고, 그중에 불랑기(佛狼機)는 더욱 긴요한 물건인데, 또한 모두 유실을 당하여, …”

이상 왕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불랑기의 제조 및 보급이—대소 조총(鳥銃)류의 보급과 시기를 같이 하며—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충 1664년(현종 5년)경으로 추정되며, 숙종(肅宗)기에 들어와 육군의 각 요충지와 수군의 통제영 및 각 수영에 배치됨으로써 점차 새로운 화기(火器)체제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변천된 화기체제는 정조(正祖)기까지도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1787년(정조 11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우수영지(全羅右水營誌)」(일본 海軍省 소장)의 한 군기(軍器)목록에 “지자포(地字

砲) 11명(柄), 황자총(黃字銃) 27명, 승자총(勝字銃) 23명, 불랑기(佛郎機) 30위(位), 백자총(百字銃) 27명, 조총(鳥銃) 430명, 현자총(玄子銃) 27명, …”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잘 짐작할 수가 있다(有馬成甫, 「火砲の起原とその傳流」(吉川弘文館, 1962), 273쪽). 한편, 예 3의 첫 부분에 “제11칸 …, 제12칸 …”, 또 끝 부분에 “좌우 총혈(銃穴)의 박철(朴鐵: 縛鐵?)이 24개”로 나타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역측해본다면 그 무렵의 전선(?)에는 좌우 각각 12개의 총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거듭 역측해본다면 이와 같은 총혈수를 갖춘 전선(혹은 거북선)은 정조기에 이르러서도 간혹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기어진다. 이상으로 매우 거친 추론을 줄이며, 예 1~예 4에 옮긴 화기종목에 관한 수군 고문서의 작성 시기는—화기체제에 또다른 큰 변천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우선 이르면 현종 또는 숙종 초기에서 늦으면 정조기에 이르는 100여년 사이에 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절 및 3절에서 보인 두 가지의 수군 고문서가 통제영(또는 경상우수영)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폐기처분되어, 어떤 우연한 경위에 따라 본영(本營) 바깥마을에 함께 유출된 것으로(즉, 이들 문서의 작성시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이 화기종목에 관한 기록문서는 숙종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1, 2 및 3절에서 각각 추론적 견해를 밝혔으므로, 따로 결론으로 총괄하는 것은 생략한다. 다만 부언한다면, 임진왜란 이후 전선 및 거북선의 크기는 이순신 당시의 규격에 비하여 점차 증대된 반면, 화포(火砲)류는 이순신 함대가 주로 구사한 바의 중화기로부터 점차 불랑기, 백자총, 조총 등의 경화기를 더 많이 배치하는 화기체제로 변천되었음을 이들 수군 고문서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1980년경, 統營 古屋의 벽도배지에서 水軍 古文書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할 무렵, 필자에게 그 복사물을 구하여 전해주신 尹哲守 선생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拙稿의 작성을 위하여, 원자력연구소의 바쁜 근무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재확인과 검독을 도와주신 同學 李永珍 博士와 金明燮 博士의 성의에 衷心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보고에서 인용한 수군 고문서에 관하여 연구상 관심이 있는 독자가 계시면 원문 복사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판 5. 각종 화포(火炮)의 배치와 발사체 및 부대 집물(什物)에 대한 기록문서